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이사40, 1-5, 9-11
 [화답송] 시편85(84), 9-10, 12-13, 14(◎8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독서] 2베드3, 8-14
 [복음 환호송] 루카3, 4, 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르1, 1-8

성가	8시 미사	입당 91	봉헌 221 220	성체 153 178	파견 88
	11시 미사	입당 91	봉헌 221 220	성체 153 178	파견 88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2주일(12월 7일)		대림 제 3주일(12월 14일)		대림 제 4주일(12월 21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토마스	2구역:조선덕레지나	임승원루카	3 구역	정애리스텔라	4 구역
제 1 독서	강신호요한	2구역:심태규미카엘	최환준베네딤토	3 구역	정일환프란치스코	4 구역
제 2 독서	김영선안젤라	2구역:손정옥리디아	최수영베네딤토	3 구역	정영희글라라	4 구역

회개와 후회의 차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개와 후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야 큰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죄스런 생활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느님께 귀의하는 일이며 자신의 전 생명을 하느님께 내맡기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근본적 결단이요 엄숙한 선택행위이다.” 라고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란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다.” 라고 국어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후회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들을 스스로 지우개로 지우고 그 기억을 무의식 깊은 곳에 억지로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회스러운 일들을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과거의 일들이 자신의 잘못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후회와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잘못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라면, 과거에 대한 잘못을 그냥 잊고 싶은 것이 후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후회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가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죄를 지우개로 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반성하고 인정하고 난 후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총만히 내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아서 은총이 총만히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후회(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를 싫고, 회피하고 싶은)가 아닌 회개했기 때문에 은총이 총만히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Sorry)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규 베드로 신부
인천교구 원미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부담되는 연말정산, 성탄 판공성사!

성탄을 위한 준비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벌써 대림 두 번째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보내다 보면 올해도 그냥 성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림 제2주간의 성탄 준비물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다고 말하는데, 사제인 저도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해성사를 잘해야 성체성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제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저지르면 마음이나 생각이 무겁고 어두워지게 되어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되고, 이어서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듣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판공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고해성사로 성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유형을 나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는 게 죄지요, 신부님이 알아서 사해 주세요.” 유형입니다. 죄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유형입니다.

고해성사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찰-통회-정개(결심)-고백-보속’입니다. 결국 성찰한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찰한 죄를 고백하고 보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이 제일 중요한데 제대로 성찰을 하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은 “이건 아니잖아!” 겠죠?

두 번째 유형은 “네 탓이요!” 유형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인 판공성사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고백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늘어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발 자신이 지은 죄만 짧게 고백해 주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도 지치고, 조그맣고 답답한 고해소에서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도 지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민상담” 유형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고해를 다하고 나서 한 가지만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에 살이 자꾸만 붙어서 고해를 한 것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판공성사 시기에는 피해주는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고해소에 들어와서는 머리가 하얗게 될 수도 있으니, 성찰한 종이를 고해소에 들고 와서 읽으셔도 됩니다. 고해성사는 내가 지은 죄를 간단명료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고해성사로 깨끗한 자리에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하는 더없이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지형 신부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말씀의 향기

광해, ‘왕이 된 남자’ 와 세레

저는 결혼과 동시에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천주교인인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말만 되면 낮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아내를 따라서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 안 갔다가는 아내의 잔소리는 물론 밥을 먹을 엄두도 낼 수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완전 건성이었습니다. 신부님의 강론 시간은 비몽사몽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성체를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매년 채근했지만, 전 항상 “다음에, 다음에 지금 영화 만드느라고 바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2012년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를 만들게(아니 만났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되었습니다.

전 솔직히 ‘광해, 왕이 된 남자’ 가 천만이 넘는 관객에게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수많은 관객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각종 텔레비전, 언론, 인터넷 매체들로부터 물밀듯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각종 강연은 물론 사회 각계의 사람들과의 미팅 요청이 밀어닥쳤습니다.

어딜 가도 대우를 받고 어딜 가도 찬사와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의 약속은 기본인 나날들이었습니다. 당시 전 표현하기도 어려운 기쁨과 함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혼란이 공존하는 아주 미묘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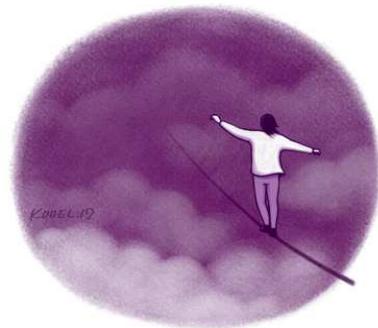
이때 아내가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차분하게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시기예요. 어딜 가도 당신을 찾고 당신이 주목받을 때 오히려 당신이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이런 행운을 가져다준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때 인 것 같아요.”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아. 가장 바쁘고, 가장 주목받고, 가장 찬사 받을 때 차분히 나를 돌아보자. 어쩌면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가장 큰 부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제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 모든 행사를 다 뒤로한 채 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리 공부하는 동안 사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이 시간 차분히 저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이었고, 비로소 천주교인이 된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만하고, 가장 자만하기 쉬울 때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며, 다음 영화도 꼭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동연 제네시오 리얼라이즈픽쳐스(주) 대표



“삶을 사랑으로 이어 붙이고
당신 발자취를 따라 살기
언제나 당신 품안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위의 곡예사처럼”
글_카푸친회 수사 빼이라노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야고보 서간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야고보 서간은 바오로 서간과 다른 관점을 드러냅니다. 이 편지가 이방인이 아닌 유다인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편지의 수신인을 ‘세상에 흠어져 사는 열두 지파’ (야고 1,1)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새 이스라엘로 여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야고보 서간이 믿음은 실천, 곧 좋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훌륭한 삶, 선한 삶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야고1,19-27; 2,14-26) 야고보 사도가 말씀의 실행을 말할 때 할례나 음식 규정처럼 예배와 관련된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이 중심이 됩니다.

가령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이 핵심 계명으로 작용합니다.(야고 2,8; 레위 19,18 참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야고 1,19-27)

야고보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인 2,14-16 곧 사람은 믿음 만으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과 실천은 바오로 사도의 것과 다르게 쓰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오로는 할례 규정과 같은 율법의 준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 요

구하는 좋은 행업을 실천할 때라야 의로워진다고 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된 믿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옷과 음식을 주는 믿음이라야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야고 1,27)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하며, 그분의 삶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며 (야고 2,1), 머지않은 미래에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야고 5,79)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야고보 서간의 핵심입니다. 실천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야고 1,25)

송해경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2월 7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유요셉(일왕)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황다윗(대현)	황율리안나(정기)
	연	돌아가신요아킴회원	요아킴회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숙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은열	찬미성가대
	연	찰리오쿠모토	신미카엘라
	생	본당신부님	전데레사(숙희)
	생	요아킴회원	요아킴회
	생	안나회원들의건강	안나회
	생	신마태오(현규)	요아킴회
	생	김임마꼴라따(마리)	찬미성가대
	생	유리디아(셋별)생일	염파트리샤
	생	황사비나(규인)	이베로니카(경란)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넷(관용)가정
	생	홍세실리아	홍안나
	생	박헬레나(호영)	김마리안나
	생	박세레나(동신)	김마리안나
12월 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2월 10일 수	연	유 F. 하비에르	임안젤라
12월 13일 토	생	임루시아축일	김카타리나
	생	김요한축일	김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4	184	-	268
헌 금	\$591	\$1,140	-	\$1,731

< 교무금 > \$3,055

윤성진(8-10) 박민진(11-12) 한재구(10-12)
조덕행(11-12) 전숙희(12) 김영자(11) 이경섭(12)
한치용(8-12) 전덕천(11-12) 변귀태(12) 김영희(12)
심재구(12) 김옥녀(12) 조우송(12)

< 성소후원금 > \$130

김원조(1-12) 전숙희(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이창용 레이몬드/베로니카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2차 헌금 안내  
12월 7일(오늘) : Religious Retirement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수)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 영세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목)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수)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목)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입니다.\*  
\* 24일, 3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 성탄 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8일(목)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 ◆ 대림특강  
일시 : 12월 14일(다음주) 미사 중  
강사 : 조마오로 수녀님
-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성탄 잔치  
일시 : 12월 25일 11시 미사 후  
내용 : 개인이나 가정별 노래/장기자랑  
신청 : 각 반장님들께 신청해 주십시오.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사목회의 : 12월 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대건회 12월 정기총회  
12월 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아킴회/안나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시 : 12월 7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행사 :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출  
점심식사, 가곡 독창/피아노 연주 및 국악마당
- ◆ 본당 ME 송년모임  
일시 : 12월 13일(토) 오후 4시  
장소 : 본당 친교실

- ◆ 서북미 꼬미시움 전단원 교육 행사  
일시 : 12월 13일(토) 오전 9시 반 ~ 오후 4시 반  
장소 : 산호세 성당  
주제 : 가두선교(이판석 요셉 신부님 강의)
  -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1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일시 : 매월 첫째와 세 번째 토요일 10시  
문의 : 510-580-7880
  -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결산서와 행사보고서 및  
2015년도 예산서를 총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이영길 안드레아 510-292-5815  
ygandrew55@gmail.com
  -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장찬호 안드레아 510-357-5669
  - ◆ 2014년도 약정하신 교무금과 그 외 약정하신 다른  
봉헌금들을 연말 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성물방 대림 20% Sale  
성물방에서 대림시기를 맞아 도서/성물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 ◆ 헤어컷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100을 트라이  
밸리 성전기금 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임마꼴라따(12/8) : 김순덕, 최명희
  - \* 루시아(12/13) : 홍지영, 장희숙, 이영문, 장수자,  
임윤택, 최은순, 강수영, 윤윤선,  
차아름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 12월 14일 : 탈렌트쇼/종업식

**안국학교 소식**

- 12월 13, 20, 27 : 겨울방학
- 2015년 1월 3일 : 개학